

성희롱 당하는 직장남성 늘고 있다

여 94.5.6

고위직 여성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어, 성별 떠나 예방책 시급

‘여성만 성희롱 당하느냐, 남성도 당한다.’ 최근 서울대 조교 사건 이후 이런 남성들의 항변이 늘고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상사나 관리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더러 남성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도 있지만 이 경우 상사에게 희롱당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쉽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덜하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경우도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보다 상사인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7사 총무과의 조모(28) 씨는 사내에서 매섭기로 유명한 유명한 여성 총무 과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 씨는 요즘 과장과 눈길을 맞부딪치지 않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런 노력은 벌써 1년을 끌어오고 있다. 회사 규모가 워낙 단출해 이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어 더욱 괴롭다는

그는 “내 사정을 들으면 나를 칠푼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며 한사코 털어놓지 않으려 했다.

조 씨가 과장을 멀리하는 이유는 “과장이 나에게 이상한 호의를 베풀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야근 때문에 단들이 남아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과장이 고생했다며 “술 한잔 하고 가자”고 제의

했을 때 조 씨는 아무 사심없이 따라나섰다. 만취한 과장이 “조 대리, 생각보다 매너가 좋은 남자네”, “술 마시면서 새삼 느낀 건데 몸이 굉장히 잘 빠졌던데” 류의 말을 했지만 취중의 농담으로 생각해 유쾌하게 받아넘겼다.

그 이후부터 과장의 술자리 제의는 빈번해졌고 그 제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공연한 것으로 ‘트집’을 잡아 그를 괴롭혔다. 간혹 조 씨의 여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과장의 이런 반응은 정도를 더했다. 그가 과장의 신경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이 먼저 식사나 술자리를 제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곤란을 모면했다.

그런 과장의 태도에 대해 가끔씩 “왜 이러시느냐”고 힐난하고 싶었지만 “남자가 이만한 일을 가지고 상사와 감정 싸움해서 이로우 것이 뭐 있겠느냐”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낼 수

도 없다고 한다.

스패션 매장에 근무하는 김경수(20) 씨는 여직원들 틈에서 유일한 청일점이기 때문에 원치않게 나이트 판매직 여직원들의 농담 대상이 되곤 한다. “내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려고 일부러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이 다반사”라는 김 씨는 “영계 운운하며 내 옷차림이나 말투를 두고 농담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웃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곳에 취직을 해 이런 장난감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때로 정색하며 “그런 농담이 듣기 싫으니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남자가 그만한 일에 화를 내느냐”며 오히려 무안을 주기 일쑤였다고 한다.

성희롱을 당해본 적이 없는 남성들은 “여성상사가 유혹해 오면 유혹에 넘어가 같이 즐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인사고가를 책임지고 있는 상사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면 직장 생활하기도 편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요구가 얼마나 심적 부담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며 “그런 일로 인해 사직서를 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여자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아느냐”고 반문한다.

성희롱으로 인해 느끼는 불쾌감에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여성들이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비해 남성들의 경우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 소장은 “직장내

성희롱은 작업 환경을 침해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노동권이 침해되는 행위는 성별 여하를 떠나 제재 대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성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하다. 여성들의 급격한 사회진출로 인해 고위직 여성의 진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직장 여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온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예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런 양상이 빚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고소하고 싶을 만큼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이 1백명 중 4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한국갤럽과 조선일보 공동조사)가 이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우 조교 사건으로 인해 작업환경과 능률을 저하시키는 성희롱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명수 기자>